

## 실학과문학비평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

김 세 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학파는 량반사대부들의 부패성과 공리공담,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후진성을 개탄하고 〈실사구시〉의 구호밑에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우수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우리 나라 근대문학의 려명기를 개척하는데 기여하였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72페이지)

실학파는 우리 나라 봉건사회말기인 17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존재하면서 량반사대부들의 부패성과 공리공담, 무너져가는 봉건국가의 후진성을 개탄하고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을 이룩하려는 진보적문인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면서 여러 단계에 걸쳐 발전하여왔다.

실학과문인들은 당시의 시대와 그 이전시기의 문학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일반화하는 평론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우리 민족문학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특히 실지한 사실에서 진리를 탐구할데 대한 《실사구시》적견해를 가지고 력대의 작가와 작품을 분석평가한 실학과문인들의 비평유산은 비평내용은 물론 비평의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그 어느때보다도 독특하고 다양한것으로 하여 실학과문학비평의 발전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실학과문학비평의 형식가운데서 새로운것은 무엇보다먼저 운문형식의 비평이다.

운문형식은 문학현상에 대한 견해와 주장, 평가를 시적언어구사를 통하여 밝히는 특색 있는 형식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비평형식은 이미 13세기에 리규보에 의하여 탐구리용되였다.

실학과문인들도 비평형식을 새롭게 탐구하여 종래의 인상비평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비평형식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비평의 형식을 다양하게 하고 그의 사상미학적기능을 높이려는데로부터 운문형식의 비평을 널리 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박제가, 리덕무, 김정희, 정약용 등의 비평을 들수 있다.

박지원의 시 《좌소산인에게 준다》는 사회가 변화발전하는데 맞게 그것을 반영하는 시나 산문도 끊임없이 발전하여야 한다는 시론적인 내용을 그대로 시화한 운문형식의 비평이다.

덥지도 않은 날 온몸에 땀 철철

텅텅한 뚱뚱보 오죽 부끄러워

... ..

흉내 내는 그 쯤을 시새워 뭘하나

제 혼자 보긴들 부끄럼 없을가

걸음을 배운다고 기는 꼴 우습고

미인을 흉내내니 상관이 더 밋다

이제야 알건대 그림속 계수나무

머기나 가래나 산나무만 못하다

변신하고 나서서 온 나라를 다 속여도  
 옷을 벗기면 멀쩡한 가짜다  
 ...  
 제 배속 더러운것 생각지 않고  
 억지로 붓을 찾아 치장을 하네

시에서 제멋에 겨워 침을 질질 흘리는 미련한 말라꽂이, 본색을 감추고 점잖을 피우는령리한 깍쟁이, 분수없이 처신하는 허약한 텃석부리, 명예욕에 미친 텃텃한 똥똥보 등은 봉건문인들속에서 절대시되던 이른바 6체(고문의 여섯가지 체격)의 폐단을 풍유적으로 표현한것이다.

시는 전반적으로 시론적인 문제를 취급하고있지만 재치있는 비유적수법과 강렬하고 격동적인 주정도로를 통하여 시의 서정성과 정서적기능을 훨씬 강화하였다.

박제가는 시 《가을들어 병이 조금 나았다》에서 《옛것만 좋다하고 지금의것을 헐지 말라/당당한 이 현실을 어찌 당해내겠는가》라고 하면서 해당 시대 현실을 반영할데 대한 견해를 시화하였으며 리덕무 역시 《초정(박제가)이 술을 보내움을 사례하여》라는 시에서 《이랬다저랬다 추세는 안따른다/남의 흉내내는 시짓기 나는 부끄러워/말끝마다 외우는것 로자와 장자/마음속엔 중국의 명승고적 생각뿐》이라고 하면서 덮어놓고 남의것을 숭상하고 따르는 모방주의를 반대하였다.

시대와 문학의 관계문제에 대한 견해를 시화한 《시를 논한다》, 문학작품에서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할데 대한 견해를 시화한 《소화에게 부치노라》, 시문학의 사상적기백을 주장한 《서서에서의 차운시》 제4수 등은 김정희의 대표적인 시들로서 여기에서는 시론적인 문제를 시화하고있다.

김정희는 운문형식으로 작품평도 진행하였는데 리림송의 그림을 보고 평가한 시 《리심암의 매화그림에 쓰노라》는 그림과 서예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있던 그의 예술가적안목과 함께 감각이 뛰어났던 비평가적안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김정희는 시 《소화에게 부치노라》에서 《붓만 잡으면 기운이 넘치》는 리광문의 시를 《시의 으뜸》이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시의 예술적특성에 대하여 《문장을 엮어내림에 바람이 속속 일어나고/시흥이 일어나자 구름이 뭉게뭉게 일어난다/짜고 발라서 힘줄과 골수가 보이고/내쉬었다 들이쉬는 사이에 늘어지고 급하게 변한다/뜻은 넓지만 알뜰한 말로 줄여놓고/기운은 왕성하지만 깨끗한 정신으로 거두어놓네/알록달록 무늬는 옛 비단이요/향기가 넘치니 가을련꽃이로구나》라고 평하였다.

정약용의 시 《로인의 한가지 유쾌한 일》(6수) 역시 운문형식의 비평으로서 여기에는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자기의것을 내세우는 시인의 애국적립장이 잘 구현되어있다.

시에서 《나는야 본시 조선사람이니/조선시를 달갑게 지어야 하리/시골에선 응당 시골법 써야 하리/더럽다고 말하는자 도대체 누구인가/구구한 시의 격과 룰을/먼데 사람 어찌 알수 있으리오》라고 주장한 여기에 다른 나라의것에 대한 맹목적인 모방을 배격하고 민족적인것을 내세운 그의 애국심과 민족적자존심이 반영되어있다.

그는 시 《변상벽의 그림 <어미닭과 병아리>》에서 형상의 생동성을 강조하고있으며 이 시의 결구에서 세부묘사를 홀시하는 태도를 두고 《예술의 힘이란 과연 이러해/볼수록 신기하

여 가지고만 싶어요/저 서투른 화공들만은/산수를 그림으로 그린다면서/되는데로 이리저리 붓만 휘두른다지요》이라고 하였다.

실학과문학비평의 형식 가운데서 새로운것은 다음으로 대담식의 비평이다.

대담식평론은 창작실천상의 일정한 문제를 두고 독자와 평론가, 작가와 평론가사이에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논쟁하는 형식으로 쓴 평론을 말한다.

론쟁형식의 평론은 평론가의 주장과 견해를 명백히 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형식의 비평은 실학과문인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척되었다. 대담식비평의 대표적인 실례로 되는 박지원의 《〈록천관집〉서문》은 다음과 같다.

《리씨집의 소년 락서(리서구의 자)는 올해 나이 16인데 나에게 다니며 공부한지 해포가 넘는다. ...일찌기 그가 〈록천관집〉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묻기를 〈아하, 제가 글을 짓기 시작한지 겨우 두어해밖에 안되건만 남의 노여움을 산것이 많습시다. 한마디만 조금 새롭고 한 글자만 다소 신기해보이는것이 있으면 반드시 옛날에도 이렇게 쓴 례가 있느냐고 따지며 없다고 하면 얼굴빛을 달리하면서 성을 내어 말하기를 어찌 감히 그렇게 쓰냐고 합니다. 옛날에 있었다면 내가 무엇때문에 다시 하겠습니까? 옛날에 이미 그렇게 쓴것이 있다고 하면 제가 또 그렇게 되풀이 할 맛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정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내가 손을 모아 이마에 얹고 세번 례를 한 다음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말하였다.

〈그 말이 극히 옳은 말일세. 끊어졌던 학풍이 자네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겠네. 창힐이 처음 글자를 만들 때 그 어떤 옛날을 본뵈었나? 안연은 공부하기만 좋아했고 서적을 저술한것은 없소. 만약에 옛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창힐이 글자를 만들던 때를 생각해가면서 안연이 저술하지 않은 사연을 적는다면 글이 비로소 바르게 될것일세. 자네가 지금 나이가 적으니 남의 노여움을 사게 되거든 공경하고 사례하면서 아직 널리 배우지 못하여 옛것을 연구하지 못했노라 하계. 그래도 자꾸 물으면 조심조심해서 대답하기를 서경에서 나오는 글들은 삼대적의 시속글이야, 리사와 왕희지도 다 각각 자기 시대의 속된 글씨였다고 하계.〉》

서문의 내용은 창작의 독창성과 관련한 논의라고 말할수 있다.

력사의 변천과 함께 모든것이 바뀌고 변하는것처럼 문학작품도 변하므로 세월의 변천과 더불어 아무리 먼 옛날의 풍속이나 노래도 다 그때의것 즉 옛날의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대하여야 하며 매 시대는 자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을 창조하는것만큼 오늘의 문학창작에서 옛날 문학을 덮어놓고 본다면 작품의 진실성을 상실한다는것이다.

여기서 비평가는 자기의 저작인 《록천관집》을 가지고 와서 스승에게 묻는 제자 리서구에게서 문제를 포착하는것으로 비평을 시작하고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문제해명으로 근기있게 유도해가고있다. 리수광은 이러한 새로운 비평형식을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서 효과적인 비평형식인 대담식비평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실학과문학비평의 형식 가운데서 새로운것은 다음으로 론설형식의 비평이다.

우리 나라에서 론설, 론문형식의 비평은 이미 13세기에 리규보에 의하여 처음으로 개척되었다고 볼수 있다. 비평 《시의 구상의 미묘함을 간단히 론평함》, 《전리지의 론문에 회답하여》, 《시귀신을 몰아내는 글》은 리규보의 대표적인 론설, 론문형식의 비평이라고 볼

수 있다.

론설, 논문형식의 비평은 주로 창작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대상으로 체계의 정연성과 내용전개에서의 논리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체계정연하고 전개된 비평형식이 실학과문학비평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박지원의 《〈영처고〉서문》, 《〈록천관집〉서문》, 《〈공작관문고〉서문》, 《〈중북소선〉서문》, 《〈소단적치〉인》과 정약용의 《두 아들에게》, 《중 초의(의순)에게 주는 말》 등은 그 대표적인 비평들이다. 이러한 비평들은 중세의 비평유산들이 산만하고 단편적인 인상비평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비하여 비교적 체계정연하고 전개된 비평형식을 띠고있다.

실학과문학비평은 다음으로 방법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것이다.

실학과문학비평은 다양한 비평형식을 적극 활용하였을뿐만아니라 비평방법도 반론의 방법, 형상적비유를 통한 방법을 비롯하여 다양하게 적용하고있다.

그중 대표적인 비평방법은 형상적비유를 통한 방법이다.

형상적비유를 통한 방법은 비평을 직선적으로 하지 않고 사물현상에 비유하여 인상적으로 생동하게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일찌기 리규보의 《시귀신을 몰아내는 글》을 비롯한 비평들에서 나타났다.

실학과문인들은 이러한 비평방법을 보다 발전시키고 널리 리용하였다.

박지원의 《〈소단적치〉인》과 《〈록천관집〉서문》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소단적치〉인》은 처남 리재성이 고급의 우수한 과거시문을 모아 10권분으로 편찬한 《소단적치》(문단의 붉은 기발)에 서문격으로 써준 글이다. 박지원은 글에서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몇백번 싸움끝에 승리를 거둔 부대들》이라고 하면서 그 창작요리를 형상적인 비유로 분석평가하였다. 여기서 그는 글자는 군사, 글뜻은 장수, 제목은 적국, 고사성구는 보루로 비유하면서 작가의 창작을 하나의 전투과정으로 일반화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나약하고 전략전술이 없는 장수가 정작 싸움판에 나서면 굳은 성벽이 우뚝 솟은것같아 초목도 적병으로 보여 공격할 틈을 전혀 발견할수 없듯이 방향도 요령도 없는 내용을 가지면 벼루에 고였던 먹이 말라버리고 붓대는 손에 잡히지 않으며 머리속에 기억하던것조차 사라져 한글자도 쓸수 없으니 세심하게 늘어놓더라도 중심이 흩어져버리고만다는것이다.

박지원은 형상적비유의 수법으로 문학의 높은 예술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작가의 형상수단 및 수법의 활용에 관한 문제 즉 작가의 창작적기량과 예술적기교련마에 관한 문제를 형상적비유의 수법을 리용하여 제기하였다.

19세기 실학자 김정희는 의인화의 수법을 리용하여 시와 시적대상의 관계문제에 대한 비평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비평은 주로 운문형식의 비평에서 볼수 있다.

정약용 역시 《중 초의(의순)에게 주는 말》에서 작가의 사상과 창작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를 쓰려고 하면서 그 사상부터 단편하지 않으면 거름무지속에서 깨끗한 물을 따라내려는것이나 썩은 풀더미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찾아내려는것과 같아서 일생토록 애만 써도 이룩하지 못할것이다.》라는 형상적인 비유의 방법으로 창작에서 사상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실학과비평에서는 또한 반론의 방법도 적용하였다.

반론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박지원의 《〈영처고〉서문》을 들수 있다.

이 글에서 박지원은 자패라는 사람이 리덕무의 시를 두고 옛사람을 배우고서도 비슷

한것을 볼수 없고 《시골뜨기의 서투른 티》와 《시골사람의 시시한 사연》을 담고있어 지금의 시이지 옛시답지 못하다고 비난한것을 두고 이 평은 옛사람의 견지에서 지금을 보는 시대착오적인 견해라는데 대하여 두가지 측면에서 반박하고 이 시야말로 참다운 조선의 노래임을 론증하였다.

그는 무턱대고 옛것을 모방하는것은 마치 수박을 걸이나 핏고 고추를 통채로 삼킨자와 함께 그 맛에 대해 이야기할수 없고 이웃집 털옷이 부러워서 한 여름에 빌려입은자와는 절기에 대해 이야기할수 없는것과 같이 시의 진미를 논의할수 없는 무식한것이라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박지원은 우리 나라가 중국과 산천, 기후, 언어와 노래, 풍속 등도 다르고 《리덕무는 조선사람이기때문에 만일 그가 중국것을 본뜨고 한나라, 당나라를 모방한다면 그 수법이 높을수록 내용이 비속하고 문체가 근사할수록 사연이 진실치 못할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당한 견해로부터 박지원은 리덕무의 시가 《상사람들의 비속함과 시속의 일상사》를 담은 그것으로 하여 오히려 참다운 조선의 노래로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같이 실학과문학비평은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매우 독특하면서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물론 실학과문학비평가운데는 일부 작품을 선정하고 평가하면서 사상적내용보다도 예술적기교측면을 위주로 하거나 사대주의적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것과 같은 일련의 결함도 있다.

그러나 실학과문인들은 문학비평에서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적극 탐구리용함으로써 문학비평의 사상미학적기능을 높이였을뿐만아니라 중세 우리 나라 비평발전수준을 과시하고 비평사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